

익산시 SNS 성장 거듭 중

제9기 익산시 소셜미디어기자단, 시민 맞춤 홍보로 가교 역할 특출

익산시가 시대에 맞는 친근한 홍보 활동으로 시민 곁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지난 해와 비교해 지난 5월 도달 수가 약 60% 증가했고 팔로우는 3,000여 명이 늘었다. 유튜브의 경우 5월에만 구독자 300명이 늘었다.

특히 소셜미디어기자단의 활약이 돋보인다. 시는 주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위해 다양한 시민으로 구성된 소셜미디어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출범한 제9기 기자단은 때에 맞춰 양질의 콘텐츠를 활발히 생산하며 단편 영상 제작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 '보석박물관 가족소풍'을 소개한 50초짜리 영상은 업로드 6일 만에 인스타그램에서 재생 4만2000 회와 좋아요 400개, 유튜브에서 재생수 1,800 회를 기록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또한 소셜미디어기자단은 문화유산 여행과 서동 축제 등 익산시 주요 축제의 사전 준비 단계부터 유용한 정보를 안내하고, 축제 현장의 열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축제뿐 아니라 익산시 곳곳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행사와 관광지, 정책 홍보 콘텐츠를 매월 60여 건 제작하고, 이를 블로그와 SNS를 통해 공개해 익산 시민과 익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소셜미디어기자단 관리뿐 아니라 자체 콘텐츠 제작은 물론 SNS 홍보 분야에서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와의 협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시는 인스타그램에 자체 제작한 릴스를 매주 2~3건 올려 이미 지난해 업로드 개수의 4배 이상을 넘겼다. 평균 재생수는 2만 회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익산의 빛깔 명소' 시리즈는 총재생수 10만 회, 좋아요 1,200개를 달성하며 불철 내내 인기를 끌었다.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콘텐츠도 매주 1회씩 올라가고 있으며 콘텐츠당 평균 1,000회 가량의 좋아요와 100여 개의 댓글로 익산의 다양한 매력을 전국에 알리고 있다.

시는 청룡의 해를 맞아 익산 문화관광 캐릭터 마룡이를 활용한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마룡이의 인기와 협업이 시가 진행하는 다양한 SNS 이벤트도 매년 성황을 이룬다. 2024 문화유산여행 현장 이벤트에서도 준비한 800개 상품이 부족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이 나타났다.

올해 시는 새로운 시도도 마룡이 디지털 상품을 제작해 무료 배포했다. 서동축제를 앞두고 무료 배포한 홍보 요정 마룡이의 일상복! '이모티콘은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준비한 5만 개가 모두 소진됐다.'

시 관계자는 "국화축제 등 하반기에 개최될 주요 축제나 행사 홍보를 위해 소셜미디어기자단·인플루언서와 지속적인 협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는 10일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를 진행했다.

시정 발전 위한 혜안을 찾다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전문가 22명 상반기 정책 논의

익산시는 10일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를 진행했다.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남궁문)는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진단·조언·건의·연구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교수와 연구기관, 언론인, 시민단체 등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됐다.

아날 회의는 전자 회의 결과보고를 시작으로 올해 주요 국가예산사업 설명 및 자료, 정책자문위원 제안 사업 발표 및 토론, 시정 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정책 제안 순으로 진행됐다.

남궁문 위원장을 비롯한 정책자문위원들은 민선 8기 공약과 국가예산 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사업(RIS) △백제 왕궁 금마저역사 문화 공간 조성 △통합형 노인 일자리센터 건립 △익산역 광역 환승 체계 구축 및 복합 개발 △비이오 특화단지 구축 등 주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또한 아동 연구 활성화, 고령시민 삼김 안전망 구축,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외국인 대상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신규 사업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제시해 준 다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형 일자리 관련 사업 중단해야”

한경봉 군산시의원, “참여기업 보조금 환수를 즉각 추진하라”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10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전북 군산형 일자리 관련 모든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참여기업 보조금 환수를 즉각 추진하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한경봉 의원은 2019년 10월 24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이 열릴 때만 해도 5년도 안 돼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상상도 못했다며 2018년 5월, 문을 닫은 한국자택 군산공장을 대신해서 전북 군산형 일자리사업으로 자동차도시 군산의 명성을 유지하고 전가차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줄 알았던 시민들은 지금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히고 2022년 11월,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에디슨모터스는 주가 조작 사건과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지난해 2023년 11월 KGM커머셜에 인수됐으며 2024년 2월 24일 3년 간의 중앙정부 지원사업 종료와 함께 발표

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실적은 목표 대비, 투자 56.9%, 고용 30.9% 생산 1.3%로 처참한 성적으로 일자리사업이란 명칭이 무색하게 일자리는 겨우 533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조 원대 경제효과 운운하던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종말은 13일 전, 지난달 5월 29일에 찾아왔으며 2019년에 한국자택 군산공장을 인수했던, 군산형 일자리 사업 투자의 88%, 고용의 78%를 차지하던 (주)명신이 전가차 완성차 사업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군산의 전가차클러스터의 동력은 완전히 사라졌고 군산형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중 이제 남은 기업은 2개, 그중 대창모터스는 투자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군산형 일자리사업이 종료된 지금까지도 군산공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으며, 부품업체인 코스텍도 본사업이 아닌 시범사업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군산시는 5월 30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통해 군산형 일자리 지속 추진 의사를 밝혀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면서 군산시 공직자여러분, 그동안 전북 군산형 일자리사업은 정부 보조금으로 겨

우 굴러가는 시늉만 한거 아니냐, 조선소 재가동하는 줄 알았더니 불룩생산만 하고 있고, 전기차 만드는 줄 알았더니 부품만 만들었다고 하고 시민들은 언제까지 숙고만 살아야 하나, (주)명신의 자금난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고 지난 1월, 사내 하청업체 대양오토 40여 명 전원해고 통보로 이미 떠들썩했는데 지난 2월, 국비 지원사업 종료 후 완성차 사업 포기를 언제 발표할지 군산시와 기업이 싸고 서로 적당한 시기를 모색한 것이 아니고 지적했다.

한경봉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지원한 금액은 16개 사업에 총 3,829억 원이고 이중 군산시가 지원한 금액은 총 544억 원이고 대부분은 사업이 종료되었지만 6월 현재도 군산시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관련 추진하는 사업은 군산 시비만 총 12억8,900만 원이라며 시민 세금을 밑 빠진 독에 계속 부을 작정이 아니라면 경고한다! 제발 그만하라! 당장 중단하라면서 군산시는 기업에 보조금 환수로 책임을 물어야 하고 공직자에게 노태적 해이 가 없었는지 시 시비버를 가려 집행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반쪽짜리 청소년 문화의 거리 개선 필요”

오임선 익산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익산시 영등동에 조성된 청소년 문화의 거리가 당초 기대에 크게 못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은 10일 익산시의회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당초 계획은 실의활동이 가능한 차있는 거리와 청소년의 몸과 마음의 휴식을 위한 청소년특화공간

조성이었으나 당초 계획 대비 눈에 띄는 성과는 없고 반쪽짜리로 전락해 버린 것 같으며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청소년특화공간은 더 많은 청소년들의 자치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청소년 문화의 거리는 실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면서 진정으로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익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익산시가 2022년부터 총 사업비 19억원의 예산을 들여 청소년들의 위한 다양한 문화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친화공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지역 소식통

군산어린이공영장 9월까지 임시휴관

군산시가 군산어린이공영장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오는 6월 17일부터 9월 말까지 약 3개월 간 임시휴관에 들어간다.

군산어린이공영장은 1988년도에 준공된 군산 KBS 공개홀을 2016년 공영장으로 용도를 변경해 급년 상반기까지 어린이 기획공영과 만화영화 상영, SCREEN 우수작품 상영 등 어린이의 정서발달에 필요한 작품으로 운영하였다.

다만 어린이가 이용하기에 불편했던 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 6억원 등 총공사비 7억1,9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개선 공사를 실시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찾아가는 지역인물 도서관' 운영

군산시는 10일 회현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역인물 도서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지역인물 도서관' 프로그램은 책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듯 지역인물인 '사람책'을 만나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선택권을 넓히고 지역에서의 삶을 설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회현중학교 1학년 학생 7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전에 실시한 선호 직업수요조사에 따라 5명의 직업인(정치인 기업인 수의사, 한의사 지역인물)이 멘토로 참여했다.

학생들은 직업을 선택하기까지의 경험,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멘토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후 직업군에 대한 탐구 활동을 통해 유익한 진로 탐색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한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찾아가는 지역인물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